Plan 1.5

Kim Do-Hyun et al. v. Republic of Korea

Korean Youth Climate Litigation

JUN 6, 2023

Plan 1.5 | Sejong Youn



Youth 4 Climate Action

경향신문





문 대통령 "검찰 수사관행도 개혁해야"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첫 언급… 압수수색 등 '선 넘었다' 판단 야당 "검찰 건박에 대통령 나서" 비판… 검찰 "법 정차 따라 수사"

에 대한 경찰 수사 와 관련해 "(검찰 개혁원 검찰관 행 사의 병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 양은 본 대통령 발언을 비만하여 김 의 주화업을 방심해 즐 것을 짜낼히 당부 함이 작구사들 촉구했다. 드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면된 항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되는 '눈물과운 대대변인이 밝혔다.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편설을 집 작은 성을배우시가 바라다"고 했다. 현재 조 정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검찰령은 가자들에게 보낸 문자 매시 국민에게 산료를 주지 못한다고 만단하는 지에서 "감정은 현법 정신에 입각하여 연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고에도 경찰 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집자에 따른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딜 경우 고강 엄청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도검찰계에이 불기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는데 대해서는 엄청한 검찰 수사가 진 행 경"이라며 "사실관계 규행이나 조 장 관이 해입자야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 찰수사동사람들차에의해가려질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집들이 해야 할 일은 감돌에 맡기

고국장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선명 등의 개막이 보다"고 밝혔다. 참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도아주시기 바 분대통령은 이어 "특히 집중은 국민들 산대로 공권하을 지접적으로 행사하는기 청외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품이되다. 문 대통령이 조 정관 취임 이후 - 미"라고 설명했다. 형의대는 지난 26일 집 경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정 정무수석의 '수사회의' 논란이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김철은 은 국민이 점 선 '개인 의견의 본 등의대 공식임장이 아 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김홍계화이라는 역 나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엄호 투명이자 국민에 대한 선천보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성 고"라며 "당해한 경찰 입반이다, 다시 것 을 받지 않고 전 검찰에을 기울이다시의 않"이라고 바란했다. 바쁜미래당 아종철 엄청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액을요구 대반인은 "면사점에서 본 대통령이 감찰

인천 강화군 내 모든 돼지 살처분한다

위해 정보가 인한 강화군 내 모든 돼지는 의성을 열어 지역 내 모든 돼지들을 삼쳐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 함집 회사에서 "ASF 9건 영 5건의 당 ASF 은 한 가족방역심 회에서 발생해 강화군의 최단의 조치가 이높다.

장을 대성으로 실제됐을 진행하기로 했 년하는 양안을 양경하고 농당하십시아 등 이 나를 강하고 하당간에서는 국용 맛의 이 내리겠던 되지 이 등하장병을 때때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회원된 ASF 맛인 이 대통령다. 남이되는 ASF 전비 4도가 ASF 발생시하기 나왔다. 24일 송에만, 다. 이에 피한 전국의 도축한, 능형 공란

중5전이 강화군에서 발생한 것에 따른 조 때문고 삼각성이 우려돼 국가위기 사전에 25일 불은면, 26일 강화도의 외상인 석모 함, 도매시장이 가용돼 돼지고가 공급이 차다. 강화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지는 방 차용에서 때문조치가 필요에 이같이 도에 위치한 삼년만과 강화용에 이어 강 재개된다. 3년5001대리다. [관환기사건환 경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한수 농사품 하는에서만 나를 연속 ASF 확인이 나왔 속은



무장관은 정부대통형사에서 열린 방에상 한 건 사료 - 되비 차당이 오건 것으로 밝혀지 황 점검 회의에서 "ASF 9건 중 5건이 강 ASF는 강화 전 지역 내에 퍼렸을 가능성

23월 이후 양성관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화군 내 발병농장들

이 공동 보노처리시설을 이용하고 농장된

용공고에서 역사를 가르친다. 대의 전부는 아니다. 정존속(55)은 1964년 1월 서울생이 86세대를 둘러만 비판적 담존이 회

D DOWN ON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마루에 다니며 사회과학에 눈을 됐다. 점을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 1962년 단국대국문과에 들어갔다. 공 목한 <불평등의 세대가, "월조선"의 책 개 등다리인 발표에 참여하고, 인터 - 인용 86세대에게 좋은 <96 세대유 대하시점도 이끌었다. 중점 후 서용 같아 등이 있답아 중간되면서다. '도구 구로공단의 전화기 제조업체에 들어 시대'는 기름을 붓는 제기가 됐다. 8 가노동조합결성을 주도했다. 얼마되 세대가 말하는 8세대, 형년들이 말하 지 않아 노조를 빼앗기고 감속에 갈 는 86세대이어기를듣는다. 다. 집행유에로 나온 뒤경기 안산으로 향했다. 자동자 아이필터 제조업제와 mainmhyundh

김육준57)은1%2년1월경북영주 도급공장 등에서 일하다 '잘했다'. 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까지 고향에 1972년 노동은 등을 광리했다. 당시 서다냈다. 1980년 서울대 역사교육과 "주변부운동"으로 불리던 여성운동에 에 입하했다. 평생을 노동으로 삶아온 뛰어들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 파스를 생각하다 (축석, C 러스템 독다) - 단점 32약도 축하는 안하다보꾜(X X 고마음먹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1 냈다. 2016년 총산에서 터볼어민주당 하면 배5·18 만주하운동이 없어났다. 비대대표로 당산했다. 고시 공부를때하지였다. 한국 근원대 두 사람은이센터 '86세대(1980년대

사 공부에 빠져들었다. 학생은 등 쪽으 학반 1960년대 출생이다. 당시자들 로디가서다 군대에 달러갔다. 북하루 후 근반 호명을 낮살이한다. 대중도 그 에는 돈을 많아야하는 한싫고, 역사하 등을 86세대의 전형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되고픈이상사이에서 고만했다. 다. 8세대라면 30대에 '나하음 무리 6-10 항쟁이 잃어난 1987년 역사교사 와 금배지를달고50대인지금은 여당 가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 원내대표나 대통령비서실장품 돼야 조) 장립에 참여했다가 해지됐다. 4년 어울리지 않는가. 그러나 우산호 여 '거리의 교사'로 살았다. 지금은 서 (57)-이안영(59-임종석(53)이 86세

"미군기지 오염, SOFA론 안돼" 5만 책과 살 내일 신문 쉽니다









툰베리처럼… 청소년 600여 명 기후대책 호소 '결석 시위'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청소년 600여 명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척도를 0점으로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무책임 끝판왕 상'을 대한민국에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결석 시위는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됐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KOREA JOONGANG DAILY

was a serious challenge

The New Hork Times

National Sports Festival celebrates its centennial KSREAN AI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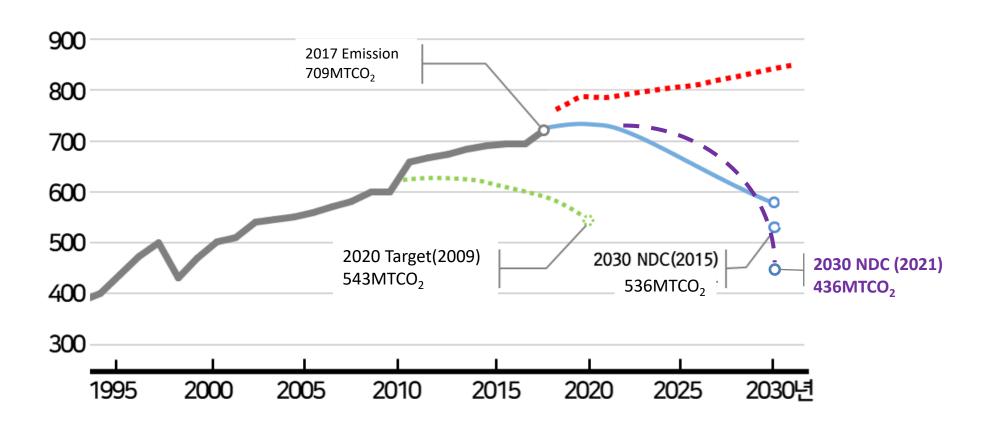
Overseas investments hit another record high







State's Failure to Address Climate Crisi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 Filed 13 Mar, 2020, currently pending
- "Framework Litigation"
- Constitutional Complaint
 - ✓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and the Presidential Decree
 - ✓ Claimed Constitutional Rights
 - Right to Life and Health
 -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 Right to Pursue Happiness
 - Right to Equality

Laws and Decrees

Carbon Neutrality Act and Presidential Decree

Article 8 (National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e Government shall set a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d-to long-term reduction target") to reduc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extent of not less than 35 percent from the 2018 levels by 2030.

Article 3 (National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es Reduction Targets)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1) of the Act means 40 percent.

1. State's Failur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ac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State has fulfilled its duty of protection for environmental right, the Court will apply "minimum protection test" and decide whether the State has implemented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 to provide at least minimum necessary protection for such right."

- Dec. 27. 2019, No. 2018HunMa730

- 2. State's infringement of Right to Equality
 -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one group from another
- 3. "Blank Delegation"
 - No reasonable boundary set for the delegation of material matter

Factual Arg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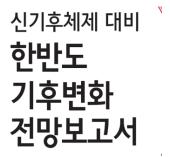
Q: Will climate change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laintiffs?

A: Ye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own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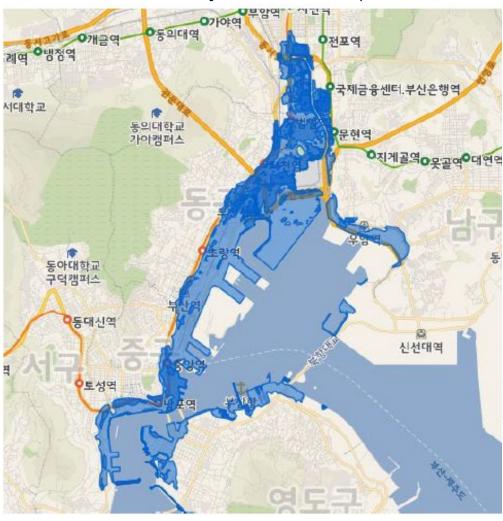




Factual Argument



100-year flood map



Factual Argument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edicts that there will be no ice during winter.



표 4.1 RCP2.6(RCP6.0)에 따른 한반도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1	I		l				
폭염일수(일)	7.3	8.1	(8.7)	10.2	(11.4)	9.5	(17.2)	
열대야일수(일)	2.8	4.4	(3.8)	7.1	(6.2)	6.2	(13.3)	
여름일수(일)	96.4	112.8	(107.5)	120.4	(115.8)	118.2	(135.1)	
한파일수(일)	16.9	6.0	(12.6)	6.5	(7.8)	5.2	(0.0)	
결빙일수(일)	21.0	6.4	(13.9)	7.7	(8.8)	5.6	(0.0))

ICE DAYS







STANDARD : The Paris Agreement Climate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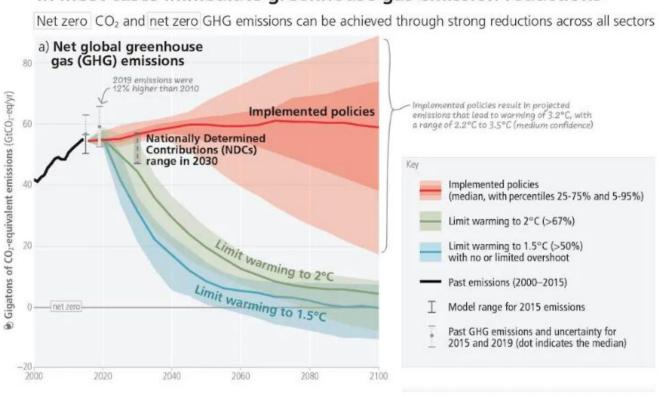
"well below 2°C"

"pursuing efforts to limit to 1.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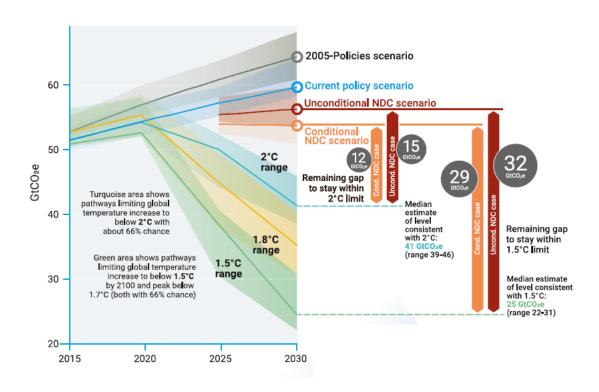
- 1. "well below 2" *definitely* means "not 2"
- 2. IPCC SR 1.5 and ensuing climate science clearly sets the level at 1.5
- 3. 1.5 goal has been reiterated in many international discussions including COP26 Decision.

■ IPCC AR6 Global Reduction Pathway : 43% from 2019 levels

Limiting warming to 1.5°C and 2°C involves rapid, deep and in most cases immediat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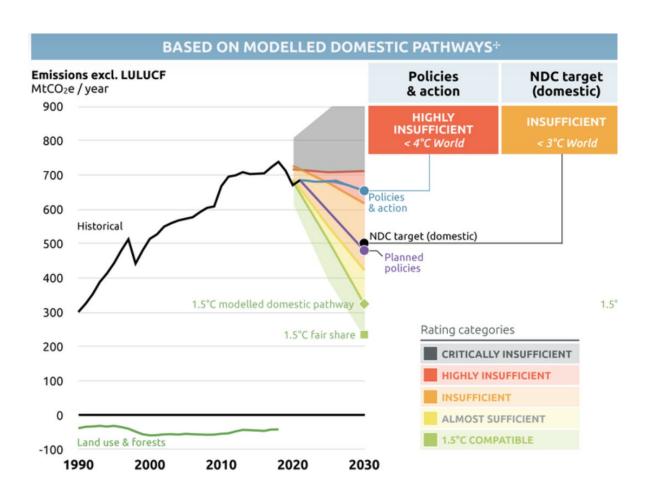


■ UNEP Gap Report established that current NDCs are insufficient : 2.9°C level



Country	Current NDC	Reduction from 2010 (2020 NDCs)	Reduction from 2010 (2023 NDCs)	
Korea	2018 v. 40%	18%	29%	
US	2005 v. 50-52%	31%	47%	
EU (27 States)	1990 v. 55%	33%	48%	
Germany	1990 v. 65%	20%	54%	
UK	1990 v. 68%	21%	58%	
Japan	2013 v. 46%	20%	42%	
Australia	2005 v. 43%	28%	44%	
Canada	2005 v. 40-45%	27%	37%	
Iceland	1990 v. 55%	52%	64%	
New Zealand	2005 v. 50%	26%	47%	
Norway	1990 v. 50-55%	54%	54%	
Switzerland	1990 v. 50%	51%	51%	
Mexico	BAU 35%	-1%	11%	
Turkiye	BAU 41%	-132%	-74%	

Climate Action Tracker: "Insufficient"



- Per Capita Carbon Budget Distribution
 - South Korea Population :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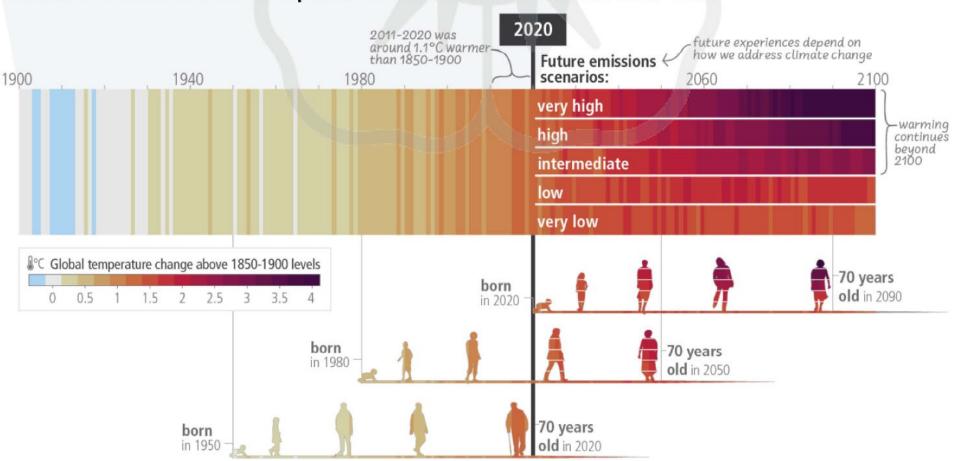
Global Warming Between 1850–1900 and 2010–2019 (°C)		Historical Cumulative CO ₂ Emissions from 1850 to 2019 (GtCO ₂)						
1.07 (0.8–1.3; likely range)		2390 (± 240; likely range)						
Approximate global warming relative to 1850–1900 until temperature limit (°C)ª	Additional global warming relative to 2010–2019 until tem- perature limit (°C)	Estimated remaining carbon budgets from the beginning of 2020 (GtCO ₂) Likelihood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temperature limit ^b				Variations in reductions in non-CO₂ emissions ^c		
		17%	33%	50%	67%	83%		
1.5	0.43	900	650	500	400	300	Higher or lower reductions in accompanying non-CO ₂ emissions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values on the left by 220 GtCO ₂ or more	
1.7	0.63	1450	1050	850	700	550		
2.0	0.93	2300	1700	1350	1150	900		

Depletion by 2026

Depletion by 2028

Legal Argument 2 : Right to Equality

c) The extent to whic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ill experience a hotter and different world depends on choices now and in the near-term



Right to Equality : Discrimination against Future Generation

Discrimination?

 ✓ (i) two discernible groups (ii) same nature (iii) different treatment (iv) with no justifiable grounds

	Future Generation	Current Generation		
Impact of CC	LARGE	Small		
Mitigation Burden	LARGE	Small		
Mitigation Cost	LARGE	Small		
Decision Making Power	No	Yes		

Right to Equality: Discrimination against Future Generation

- Defining "Future Generation"
 - ✓ Future Generation meaning "existing demographic group that will survive through longer period of time going forward"
 - ✓ i.e. <u>younger</u>generation
 - √ (Gov't Reply)
 - ✓ The law and the policy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 ✓ The comparison between current climate and "predicted future climate" cannot constitute discrimination because of its uncertainty

Right to Equality: Discrimination against Future Generation

- Defining "Future Generation"
 - ✓ "Birth Cohort" Concept
 - Average Life Expectancy : 82 yrs
 - Post-2050 Life Expectancy: >30yrs v. <10yrs
 - ✓ Pushing the burden to the future is unreasonable
 - Increases the risk of missing the target
 - Less cost-effective
 - Results in undue / unrealistic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

Case History

- 2020. 3. 13. Complaint Filed
- 2020. 10. 29. Government Reply Filed
- 2020. 5. 2023. 5. 8 Supplemental Brief Filed
 - Comparative law analysis: Netherlands, Germany, Ireland, Hawai'l
 - Climate Science: AR5, SR1.5, AR6, Emissions Gap Report
 - Amicus Brief : CIEL, Urgenda Foundation
- 2023. 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pinion
- Public Hearing ? Decision ?
- 2035 NDC Discussion begins in 2024.